

번역 속의 주석, 그 가능성과 한계 -내용 동등성 번역의 경우-

왕대일*

1. 번역을 위한 주석, 주석을 위한 번역

번역은 주석(exegesis)이다. 주석이 동반된 작업이다. 번역의 원칙을 형식 일치(formal correspondence)가 아닌 내용의 동등성(dynamic equivalence)에서 찾을수록 번역 과정에는 주석이 동반된다. 성서번역에서 중요한 것은 번역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성서 원문과 똑같은 ‘의미’를 느끼도록 해주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¹⁾ 내용 동등성 번역은 원문의 구조나 형식(form)보다는 원문의 의미와 뜻(meaning)을 번역문에 담아내는 것을 강조한다. 그만큼 번역과 주석 사이에 경계선을 긋기가 모호하게 된다. 번역이 원문의 뜻을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주석도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쓰는 까닭이다. 아니 번역보다 더 철저하게 주석은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주석자의 언어로 재구성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주석은 성서번역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까닭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찍이 제롬(Jerome)이 그리스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부터 이런 인식은 짙게 되었다. 비록 제롬이 성서본문의 경우를 예외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어를 번역할 때 중요한 것은 글자가 아니라 그 의미라고 인정했던 것에 주목해야 한다. 제롬은 “나 스스로는 그리스어에서 번역할 때, 글자의 순서가 하나의 수수께끼처럼 되어 있는 성서의 경우는 예외이지만, 글자를 글자로 옮기지 않고 의미를 의미로 옮긴다”고 천명하였다.²⁾ 원래 본문의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은 주석적인 과제다. 주석의 사명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듣고 파악해서 옮기는 작업인 까닭이다. 그렇기에 번역이 글자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글자만이 아닌 그 글자의 의미를 살려서 옮겨야 한다면 그런 번역에는 이미 상당부분 번역자의 본문 주석이 반영되어 있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1) 이와 관련된 논의는 S. E. Porter and R. S. Hess, eds., *Translating the Bible: Problems and Prospects*, JSNTSup. 17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을 참조하라.

2) Letters 57.5, William Barclay, *The New Testament* vol. 1, 314; Daniel C. Arichea, “Taking Theology Seriously in the Translation Task,” Roger Omanson, ed., *Discover the Bible*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2001), 240에서 재인용.

다.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신학적인 개념이나 주장, 신학적인 용어나 표현 일수록 번역자는 우선 본문 주석에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난 뒤에야 번역문에 담긴 성서 원문은 의미를 살려 전달된 본문이 될 수 있다. 번역을 위한 주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준새번역』은 내용의 동등성 원칙에 따라 번역된 우리말 성경이다. 가령 『표준새번역』의 룯기 2장(3, 7, 15절)은 번역 작업에 주석이 왜 요청되는지를 제시하는 한 예에 속한다.³⁾ 예컨대 룯기 2:7은 많은 주석가들에게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에 부담이 된 구절이다.

וְאִסְפְּתֵי בַעֲמֻרִים אַחֲרֵי הַקּוֹצִים וְתָבוֹא וְתַעֲמֹד מֵאֵז

הַבָּקָר וְעַד־עֵתָה זֶה שְׁבִתָּהּ הַבַּיִת מֵעַט

우리말 개역의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와 표준새번역의 “내게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 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의 차이도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 아침 일찍 보아스의 밭에 온 룯에게 “곡식단들 사이에서(בַּעֲמֻרִים)” 이삭을 주워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진 것은 밭주인 보아스가 온 다음부터이기에(룯 2:15) 룯기 2:7의 בַּעֲמֻרִים는 문맥의 흐름을 파기하고 있다. 또 『표준새번역』의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라는 번역은 『개역』과는 달리 히브리어(וְעַד־עֵתָה)의 뜻, 이삭줍기를 주인으로부터 허락 받을 때까지 “서서 기다리던” 동작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뜻이 분명하지 않은 זֶה שְׁבִתָּהּ הַבַּיִת מֵעַט라는 히브리어 구문도 『표준새번역』은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삭줍기의 사회적 배경에서 해석하고 있다.⁴⁾

내용 동등성 번역에 따르면 성서번역자들은 성서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그 뜻을 우리말 어법에 맞추어 재구성해야 한다. 뜻이 통하도록 번역해야

3) 여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민영진, “룯기 2장 7절의 번역문제,”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305-313을 보라.

4) 룯기 2:7의 זֶה שְׁבִתָּהּ הַבַּיִת מֵעַט에 대한 해석은 역사적으로 그 논란의 뿌리가 깊다. 고대역본들에도 이런 어려움이 흔적으로 남아 있다. 칠십인역은 “그가 밭에서 잠시도 (일을) 쉬지 않았다”고 옮겼지만, 불가타는 “그는 집에 갈 시간도 없었다”로 옮겼다. 칠십인역이나 불가타는 히브리어 구문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맥상 적절하다고 판단된 단어들을 본문에 삽입해서 해석함으로써 본문의 어려움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표준새번역은 애매한 히브리어 단어들을 번역에서 삭제하거나 고대 역본들의 번역으로 대치하는 방식이 아닌, 히브리어 구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뜻을 문맥이나 사회적 배경 등에 맞춰 해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원문에 대한 존중 못지 않게 번역문인 우리말에 대한 존중이다. 그래서 번역에서는 원문의 문법 형식보다는 원문의 의미가 살아나게 해야 하고, 원천언어의 구조보다는 수용 언어의 표현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 뜻이 통하는 번역을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번역자 누구에게나 아무런 이의가 없다. 문제는 그 “뜻”의 파악에 있다. 뜻이 통하도록 번역해야 된다는 말에는 성서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문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문과 번역문 사이에 의미상의 대응(dynamic equivalence)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번역자가 그 원문의 뜻을 하나로 파악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학적, 문법적, 구문론적 구조는 우리말과 현저하게 다르다. 이런 구조 속에서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는 때때로 다의적(polyvalent)이 된다. 만약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하나가 아닌 여럿으로 해석된다면 번역자는 그 많은 해석 가운데 어떤 것을, 무슨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더 큰 문제는 본문에 대한 불충분한 해석(주석)이 잘못된 번역을 낳게 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자리 잡는다. 원문의 의미가 애매하기에 번역자가 원문의 의미보다는 원문의 글자를 직역하게 될 수가 있다. 번역자의 신학이 성서 용어 등을 번역자의 경향에 맞춰 인위적으로 변질시킬 수도 있다. 또 교회가 오랫동안 익숙하게 사용해 온 신학적 용어이기에 의미의 역동적 번역을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지나친 경우이긴 하지만 의미의 전달을 따르다가 번역이 아닌 의역(paraphrasing)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번역자의 재량은 어디까지인가? 원문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것을 번역문으로 재구성할 때 번역자가 갈 수 있는 정당한 번역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주석은 바로 이 점에서 번역에 도움을 준다. 주석은 본문의 저자가 그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번역은 원문의 원 독자들이 이해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본문의 의미를 서술하는 작업이다. 주석은 번역을 낳고 번역은 주석을 이끄는 통로가 된다. 번역자는 주석하는 사람들 못지 않게 성서 저자의 삶과 생각, 의도, 신앙 등을 익숙하게 파악해야 한다. 저자(본문)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저자(본문)의 말에 익숙하게 되지 않는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성서 저자의 경험을 영적으로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지경에 이르도록 본문의 세계에 깊이 침잠해야 한다. 이런 준비를 갖추어 주석과 번역 사이의 엄밀한 경계는 사라지게 된다. 주석이야말로 의미 있고 성실한 번역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작용하게 된다.⁵⁾ 번역 속의 주석을 살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서번역이 성서

주석의 일환이 되는 까닭이다. “의미의 역동성” 번역은 본문의 원래 의미를 찾는 주석의 과제와 뿔레야 뿔 수 없는 상관관계를 지니게 된다.⁶⁾

2. 본문비평과 본문번역

주석은 해석학에 속한다. 주석은 글로 기록된 본문을 해석하는 기술이다. 주석 방법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역사비평적 방법에 속한 문헌, 양식, 전승, 편집비평은 물론이고 역사비평 이후에 시도된 여러 유형의 성서해석방법들(수사학, 구조주의, 사회학, 정경, 여성신학 등)이 주석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비평(*krinein*)은 본문의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그 원래 독자들이 이해했던 대로 그 원래의 메시지를 판별하기 위한 노력이다. 성서비평이란 성서주석을 이루는 방법론인 것이다. 성서비평 외에도 주석에 도움을 주는 여러 인접 학문들이 있다. 예컨대 언어학, 고고학, 성지 지리 같은 학문들이 성서주석에 크게 기여한다. 하지만, 이런 여러 방법들 중에서 성서번역에 직접 관여하거나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본문비평(Textual Criticism)과 언어학(Linguistics)이다.⁷⁾

성서번역에서 본문비평적 토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⁸⁾ 예컨대 1956년 쿨란 제 11동굴에서 발견된 시편(11QPSa) 사본에는 시편의 마지막 1/3에 해당되는 본문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속에는 마소라 본문에는 없는, 그러나 칠십인역이나 시리아어역 구약에는 수록되어 있는 세 편의 시가 포함되어 있었다.⁹⁾ 이것은 쿨란 공동체가 시편을 읽을 때

5) Daniel C. Arichea, “Taking Theology Seriously in the Translation Task,” 242; Daniel C. Arichea, “Theology and Translation: The Implications of Certain Theological Issues to the Translation Task,” Philip C. Stine, ed., *Bible Translation and the Spread of the Church: The Last 200 Years* (Leiden: E. J. Brill, 1990), 40-67; Heber F. Peacock, “Extra-Textual Interference in Bible Translation,” Roger Omanson, ed., *I Must Speak to You Plainly: Essays in Honor of Robert G. Bratcher* (Carlisle United Kingdom: Paternoster, 2000), 201-213.

6) John Rogerson, “Can a Translation of the Bible be Authoritative?,” Athalya Brenner and Jan Willem van Henten, eds., *Bible Translation on the Threshold of the Twenty-First Century: Authority, Reception, Culture and Religion*, JSOTSup. 35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25-28.

7) 비교, Edesio Sanchez, “Biblical Exegesis,” *Discover the Bible*, 193-233, 특히 195.

8) 참조, E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2nd ed. (Minneapolis: Fortress, 2001); Emunuel Tov, “Textual Criticism(OT),” David Noel Freedman, ed., *The Anchor Bible Dictionary* (Grand Rapids: Eerdmans, 1995), 393-412; Moshe H. Goshen-Gottstein, “Textual Criticism, Hebrew Bible,” John H. Hays, ed., *Dictiona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vol. 2 (Nashville: Abingdon, 1999), 541-546;王大일, “번역 속의 주석- 본문비평적 검토: 신명기(MT와 LXX, 개역과 표준새번역)를 중심으로,” 『좀 쉽게 말해 주시오- 본문비평과 성서번역』, 민영진 박사 회갑 기념 제 1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67-210.

훗날 정경에 속하게 된 시편이나 그렇지 않은 시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었다는 증거가 된다. 쿰란 공동체에서는 정경의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성서본문이 주후 70-135년에 표준화되기 이전 단계를 “본문의 유동성(fluidity of the text)”이라고 부른다. 본문이 정경(거룩한 책)으로 고정되기 이전에는 다양한 본문들이 거룩한 이야기의 형태로 읽혀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런 단계를 학자들은 이른바 본문상의 다양성(textual diversity)이라고 부른다. 마소라 본문과 차이를 지닌 칠십인역(LXX)의 본문도 이 단계에 있었던 본문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¹⁰⁾ 마소라 본문이 주후 1-10세기에 표준 본문으로 고정되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칠십인역 구약은 히브리어 본문이 마소라 본문으로 고정되기 이전에 활발하게 읽혔던 어떤 거룩한 이야기(히브리어 자음본문)를 본문으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우리에게는 구약성서의 원본이 아닌, 소수의 사본들과 많은 고대 번역본들만 주어져 있다. 본문비평은 이 사본들과 고대 번역본들을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번역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더 나은 본문(better reading)”이 어떤 것인지를 판별하는 데 기여한다.¹¹⁾ 구약의 본문비평은 신약 본문 비평과는 달리 히브리어 원문의 “재구성(reconstruction)”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 대신 어떤 사본을 번역의 원본으로 삼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일에 더 깊이 관심을 둔다. 신약의 경우와는 달리 구약의 사본 수가 수량에 있어서나 그 연대에 있어서 크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¹²⁾ 구약을 번역할 때 흔히 원문(대본)으로 삼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는 페테르스부르크 코덱스(Petersburg Codex), 곧 옛 레닌그라드 사본(Leningrad Codex, B19A, 주후 1008년)의 마소라 본문(Masoretic Text, 이하 MT)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삼은 성경이다.¹³⁾ 전승되어 온 여러 사본

9) 쿰란 제 11동굴에서 발굴된 시편의 영서 번역은 Martin Abegg, Jr., Peter Flint, and Eugene Ulrich, *The Dead Sea Scrolls Bible* (San Francisco: Harper, 1999), 506-589를 보라.

10) Em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2001), 161.

11) 다음을 비교하라. Barbara Aland, “New Testament Textual Research, its Method and its Goals,” 왕대일 엮음, 『좀 쉽게 말해 주시오- 본문비평과 성서번역』, 63-88; Adrian Schenker, “What Use is Textual Criticism for Old Testament Exegesis? With an Explanation of the Critical Apparatus in the *Biblia Hebraica Quinta*,” 왕대일 엮음, 『좀 쉽게 말해 주시오』, 89-106.

12) 사해사본을 제외하고 현존하는 히브리어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이 주후 9세기와 10세기의 것인 것을 기억하라. 마소라 본문의 사본 가운데 현존하는 것들을 오래된 순서로 열거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모세 벤 아셰르(Moses ben Asher)가 팔레스타인의 티베리아에서 만든 카이로 예언서(Codex Cairensis, 주후 895년), 페테르스부르크 후기 예언서 사본(Petersburg Codex of the Prophets, 주후 916년), 알렙포 코덱스(Aleppo Codex 주후 930년), 영국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오경 사본(British Museum Codex BM Or 4445, 주후 950년), 페테르스부르크/레닌그라드 사본(Codex Petersburg/Leningradensis, 주후 1008년), 코덱스 로이클리아나(Codex Reuchliana, 주후 1105년) 등이다. 히브리어 사본에 관한 우리말 해설로는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41-48을 보라.

가운데 하나를 기본 본문(표준 본문)으로 채택한 것이기에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히브리어 성서는 모두 여러 사본들이나 번역본들과의 이독(異讀)이나 차이를 아파라투스(apparatus)라는 난하주나 난외주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본문비평상의 과제가 번역상의 문제와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오늘날 번역자가 마소라 본문을 떠나서 칠십인역이나 그 밖의 고대역본의 본문을 본문(번역)으로 재구성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미 본문비평적인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표준새번역』의 난하주는 성서번역의 과정에 본문비평적 해석이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밝히는 증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표준새번역』의 오경에 실린 난하주를 살펴보면 총 31개의 난하주가 그런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 그 난하주들은 다음 몇 가지로 구분된다.

마소라 본문을 떠나 사해사본이나 사마리아 오경이나 칠십인역이나 시리아역을 따른 경우 (13 곳)

창세기 2:2; 4:8, 15; 7:2; 37:36; 44:5; 출애굽기 1:22; 8:23; 신명기 10:13; 11:13; 11:14; 29:10; 33:17

마소라 본문과 다른 사마리아 오경이나 칠십인역이나 시리아어 역의 본문을 난하주에 제시한 경우 (14 곳)

창세기 11:12-13; 36:14; 41:22; 46:27(x2); 47:21; 출애굽기 1:5; 3:14; 12:40; 14:25; 신명기 5:5; 17:18; 32:8, 43

마소라 사본 가운데 일부와 사마리아 오경과 시리아역을 따라 마소라 본문을 고친 경우 (1 곳)

창세기 36:39

히브리어 본문이 불확실하다고만 밝히고 다른 번역의 가능성을 제시한 경우(2 곳)

창세기 49:22; 출애굽기 17:16

13) 이 점은 BHS 제 3판 이전에 등장했었던 히브리어 성서들과는 차이가 난다. 가령 두 판에 걸쳐 발간되었던 BHK(1909)나 『긴스버그(Christian David Ginsburg) 구약』(1894년 출판, 1908년과 1926년에 부분 개정)의 히브리어 본문은 20세기 초까지 히브리어 구약성서로 군림하였던 야곱 벤 하임 이븐 아도니아(Jacob Ben Hayyim Ibn Adoniah) 편집의 『제 2 랍비성서』(Biblica Rabbinica, 1524/25년)가 지녔던 절충 본문(eclectic text)이다. 우리말 『구약』의 히브리어 대본도 『긴스버그 구약』을 따랐다.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47를 보라.

그냥 고대역을 따른다고만 밝히고 있는 경우(1 곳)
민수기 12:6

여기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대상은 마소라 본문을 떠나 사해사본이나 사마리아 오경이나 칠십인역이나 시리아역을 따른 구절들 열세 개이다(창 2:2; 4:8, 15; 7:2; 37:36; 44:5; 출 1:22; 8:23; 신 10:13; 11:13; 11:14; 29:10; 33:17). 히브리어 본문이 매끄럽지 않을 때 번역자는 본문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해야 한다. 이른바 번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원문의 조정(첨가나 삭제 변경) 문제들이다. 이독(異讀)을 비롯한 여러 본문상의 증거들, 사전적이거나 문법적인 판단, 병행구문과의 비교, 서기관들의 실수를 비롯한 본문의 파손이나 오류들, 언어학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 같은 것들이다. 이런 여러 요소들을 검토한 후 번역자는 히브리어 본문을 떠나서 고대 역본들의 번역을 수용언어의 본문 속에 따를 수 있다. 『표준새번역』 오경의 난하주가 밝히는 열세 구절은 번역자가 우리말 번역에서 왜 마소라 본문을 떠나 사해사본이나 사마리아 오경, 칠십인역이나 시리아 역 등의 번역을 수용하였는지를 충분히 밝히고 있지 않다. 추측컨대 본문을 문맥 등에 맞춰 단순화하거나(창 2:2; 출 1:22; 신 11:13, 14; 33:17) 본문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생략된 표현을 보충하거나(창 4:8) 사전적 정보 등에 근거해서 어려운 원문의 형태를 재구성해보거나(창 4:15; 출 8:23; 신 29:10) 병행구문 등에 맞춰 구문을 파악하거나(창 37:36) 다수 고대역본들이 취한 본문을 따라서 본문의 어려운 표현을 이해한(창 44:5) 경우로 보인다.

히브리어 본문을 번역의大本으로 삼을 때 참조해야 할 “거룩한 말씀”이 역사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사실은 번역자들에게는 하나의 은총이다. 칠십인역도, 그것이 비록 마소라 본문과는 표현이나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처음에는 주전 3세기 알렉산드리아 디아스포라에서, 주후 1세기 이후에는 고대 교회에서 거룩한 책(정경)으로 읽혀졌던 성경이다.¹⁴⁾ 이런 본문상의 증거들은 히브리어 본문이 난해하거나 애매하거나 파손되어 있을수록 번역을 돕는 장치가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문비평적 해석과 본문번역을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본문비평 학자들은 본문 상의 이독(異讀)을 만났을 때 대체로 마소라 본문을 따르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것은 마소라 본문이 히브리어 텍스트(페테레스부르크 코텍스)가 거룩한 말씀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던 단계부터 전승된

14) J. A. Sawyer, *Sacred Languages and Sacred Text*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9), 94; M. Mueller, *The First Bible of the Church- A Plea for the Septuagint*, JSOT supplement series 20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78.

사본의 전통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석학적으로 말할 때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셉투아진트(LXX) 사이에 존재하는 이독(異讀)은 정경들(Scriptures) 간에 존재하는 거룩한 이야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 곧 “비교 미드라쉬(Comparative Midrash)”의 차원에서 갈무리되어야 한다. 성서본문에 담긴 “해석학적 다중성(hermeneutical pluralism)”이야말로 주석의 지평에서 다듬고 표현해야 한다. 번역자는 그 다중성에 귀를 기울인 채 본문(원문)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을 본문(번역)으로 다루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3. 번역을 위한 언어학

성서번역을 본문 주석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때 가장 요긴하게 활용되는 학문은 사람의 언어에 대한 학문인 언어학이다.¹⁵⁾ 언어학에는 언어를 살펴보는 방식이나 관점에서 여러 다양한 지류들이 있다. 사람의 언어에 내포된 요소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다. 음운론(phonology), 곧 언어의 소리 체계에 대한 연구, 형태론(morphology), 곧 단어의 형태에 관한 연구, 구문론(syntax), 곧 글자들이 연결되어 문장을 형성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 의미론(semantics) 곧 단어나 구문의 의미에 관한 연구 등이 성서번역에서 널리 알려진 언어학적 도구들이다. 또 언어를 어떤 관점에서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언어학적 유형론(Linguistic Typology, 언어를 상이한 구조적 공통점에 따라 구분하는 연구),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 언어학적 변화나 담화 등에 어떤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는 지에 대한 연구), 심리언어학(Psycholinguistics, 사람들이 문장 속에 어떤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형식 등에 대한 연구), 화용론(話用論 Pragmatics,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그 의미와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에 대한 연구),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 등으로도 구분된다.

언어에 대한 입장도 크게 둘로 구분된다. 하나는 모든 언어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언어적, 어의적 구조를 지닌다고 보는 언어학적 보편론(linguistic universalism)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전통이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의 언어들은 서로 다르며 그것들은 서로 다른 문화나 세계관 등을 각각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언어학적 상대론(linguistic relativity)이다.¹⁶⁾ 전자를 따를 경우 번역은 실제보다 더 수월하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지만, 후자를 따를 경우 번역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 등을 비교적 잘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이 후자의 관

15) L. Ronald Ross, “Linguistics and Translation,” *Discover the Bible*, 355-396.

16) *Ibid.*, 357-358.

점에서 의미의 역동적인 전달에 치중하는 번역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판단하는 토론에 뛰어 들 수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언어학적 토론에 깊이 관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필자의 영역 밖에 있는 과제이다. 필자가 여기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의미의 전달에 치중하는 성서번역이 실제로 얼마나 주석적인지를 언어학적 참조사항에 비추어서 파악해보려는 노력이다. 모든 말에는 두 요소가 있다. 하나는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이다. 모든 언어에는 의미를 표현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다. 한 언어를 다른 말로 번역하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우선 수용해야 한다. 번역자는 원천언어(원어)와 수용언어(번역어)에 모두 능통해야 한다. 우리가 특정 본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했다면 우리는 원문이나 원천언어의 형식이나 표현에 지나치게 많은 역점을 두었다는 뜻이 된다. 그만큼 수용언어나 번역문장에는 덜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요나 3:3b을 예로 삼아 살펴보자.

우리말 번역은 『개역』이나 『표준새번역』이나 “니느웨는 굉장히 큰 도시로서 돌아다니는 데 사흘이나 걸리는 곳이었다”라는 문장으로 옮긴다. 『개역』과 『표준새번역』 사이에는 다만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 점은 여러 영어 번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 “Now Nineveh was an exceedingly great city, a three-day journey in extent”라는 식으로 옮기고 있다 (NKJV, NIV, NRSV). 그러나 이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은 현대어 번역들과 차이가 난다. 히브리어 구문은 עִיר־גְּדוֹלָה לְאֱלֹהִים וְנִינְוֵה הָיְתָה עִיר־גְּדוֹלָה לְאֱלֹהִים으로 “니느웨는 사흘동안 걸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도성이었다”로 되어 있다. 히브리어 본문은 분명 “하나님 앞에 큰 도성”이라는 구문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한 도시의 규모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다. 물론 히브리어 גְּדוֹלָה לְאֱלֹהִים를 일종의 최상급 표현(superlative)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요나 3:3의 주석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파악하는 일에서 인간의 눈(시각)과 하나님의 눈(시각)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 공헌한다(참조 사 40:22).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큰 도성이라는 표현에는 인간의 시각으로는 깨칠 수 없는 어떤 중요성이 각인되어 있다. 『개역개정판』의 번역(“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이 이 점을 밝혀 놓은 것은 다행이다.¹⁷⁾

형식과 내용, 표현과 의미는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을 서로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 놓으라는 것은 아니다. 언어의 표현은 단순히 의미나

17) 예를 들어 레슬리 알렌(Leslie C. Allen)도 이 구문을 살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Now Nineveh was a vast city, even by God’s standards: it took three days to cross,” Leslie C. Allen, *The Book of Joel, Obadiah, Jonah, and Micah*,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6), 220.

메시지를 담는 포장이 아니다. 언어의 표현은 일정 부분 의미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다른 말로 하면 단어나 글의 형식이나 표현이나 말의 구조는 모두 의미를 전달하는 요소들이다. 이것은 어떤 문장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요소가 특정 표현 속에 있는 말이나 단어들만이 아닌, 말과 절이 연결되어 이룬 구문이나 문장으로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말이나 문장의 의미는 동사의 시제나 형태, 동사에 첨부된 인칭어미의 성(gender)에게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직유나 은유, 환유, 속담이나 격언 같은 표현이 가미된다면 말과 문장의 의미는 그것과 기능적으로(functionally!) 상응하는 표현으로만 재생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의미’란 원문이 전달하고자 원했던 메시지라는 광범위한 차원에서 갈무리되게 된다.

번역이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다. 동일한 메시지가 다른 형식으로 표현되지만, 그 번역이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원문의 의미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있다. 의미의 전달이야말로 번역에서 소중하게 갈무리되어야 할 요소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원문의 형식이나 표현을 파손하라는 것은 아니다. 번역자는 항상 형식과 의미 사이에 책임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원문의 표현이나 형식에 집착하면 문자적 번역으로 기울어지고, 그 반대로 지나치게 수용언어의 용법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자칫 의역으로 흐를 수도 있는 긴장감이 번역자 앞에는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성서번역에서 번역자는 언제 의미의 동등성 번역을 활용해야 하는가? 다음 다섯 가지 제안은 우리의 토론에 도움을 준다.¹⁸⁾

첫째, 형식 일치의 번역으로는 본문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의미의 동등성 번역을 활용한다. 둘째, 형식 일치의 번역으로는 번역문이 애매하게 될 때 의미의 동등성 번역을 활용한다. 셋째, 형식 일치의 번역이 혼란을 자아낼 때 의미의 동등성 번역을 활용한다. 넷째, 형식 일치의 번역이 복잡하거나 모호할 때 의미의 동등성 번역을 활용한다. 다섯째, 형식 일치의 번역이 번역문에서 자연스럽게 않을 때 의미의 동등성 번역을 활용한다.

4. 의미와 형식

번역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원문의 의미를 번역문에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번역의 대상은 원문의 형식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이다. 그것을 일러주는 가장 단적

18) Edesio S. Cetina, “Functional(Or, Dynamic) Equivalence Translation,” *Discover the Bible*, 397-408, 특히 401-402.

인 경우가 인사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파악된다. 영어로 “How are you”를 우리말로 옮길 때, 또는 우리말의 “안녕하십니까?”를 아프리카의 부족어나 그 밖의 여러 외국어로 옮길 때 자연스러운 것은 의미의 전달이다. 인사말을 문자적으로 번역(직역)해 놓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자연스럽지 못하다. 인사말의 번역에서 돋보이는 것은 표현(형식)은 다르지만 그 뜻(기능)은 원천언어나 수용언어에서 서로 상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번역은 원문의 뜻을 옮기는 작업이다. 이런 전체 속에서 필자는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하려고 한다.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의 구조를 간과하지 말라

아무리 번역에서 원문의 뜻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도 원문 형식을 무조건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든 언어는 특정한 문법 구조 속에 단어와 상징 등을 기록해 놓았다. 단어나 상징을 벗어나면 번역은 우선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된다. 이 때 번역자는 원문에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담겨 있는 특정 정보(구문론적, 문법적 정보나 문맥상의 의미)에 민감해야 한다. 원문이 의도적으로 특정한 단어나 말을 생략할 때도 있고, 그 반대로 특정한 단어나 말을 첨부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히브리어로 표현된 계명이나 시문에는 원문의 의미 파악에 필수적인 문법적 요소들이 생략되어 있거나 첨부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생략이나 첨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원문의 의미를 번역문 속에 온전히 재구성할 수 없다. 번역의 과제를 원문의 형식이 아닌 원문의 의미에 두고 있다고 해도 원문의 내용은 그 형식과 더불어 충실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형식을 떠난 내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좋은 예가 신명기 5:17-21에서 발견된다.

신명기 5:17-21

『개역』 17 살인하지 말지니라 18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19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20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21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표준새번역』 17 살인하지 못한다. 18 간음하지 못한다. 19 도둑질하지 못한다. 20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21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KJV 17 Thou shalt not kill. 18 Neither shalt thou commit adultery. 19 Neither shalt thou steal. 20 Neither shalt thou bear false witness against thy

neighbour. 21 Neither shalt thou desire thy neighbour's wife, neither shalt thou covet thy neighbour's house, his field, or his manservant, or his maidservant, his ox, or his ass, or anything that is thy neighbour's.

NIV 17 You shall not murder. 18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19 You shall not steal. 20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21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 You shall not set your desire on your neighbor's house or land, his manservant or maidservant, his ox or donkey, or anything that belongs to your neighbor.

NRSV 17 You shall not murder. 18 Neither shall you commit adultery. 19 Neither shall you steal. 20 Neither shall you bear false witness against your neighbor. 21 Neither shall you covet your neighbor's wife. Neither shall you desire your neighbor's house, or field, or male or female slave, or ox, or donkey, or anything that belongs to your neighbor.

히브리어 본문에서 신명기 5:17-21은 매 명령문이 접속사 “waw(ו)”로 연결되어 있다.¹⁹⁾ 이것은 신명기 5:17-21이 하나의 단원을 이룬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문상의 장치이다. 이것은 신명기 5:17-21을 하나의 계명으로 더불어 읽어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접속사 “그리고”를 생략하므로 히브리 본문의 의도를 놓치고 있다. NRSV의 경우 신명기 5:17에 이어지는 5:18-21을 “Neither…” 구문으로 처리함으로써 신명기 5:17-21을 하나로 이어지는 도덕 계명으로 보게 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원문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면서도 신명기 5:6-21의 계명이 야웨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6-10절)→ 야웨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계명(11절)→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12-15절)→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16절)→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도덕에 관한 규정(17-21절)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번역문에 살리고 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신명기 5:6-21은 그 길이에서 길고(6-10절, 하나님을 예배하기)→ 짧고(11절, 하나님의 이름)→ 길고(12-15절, 안식일)→ 짧고(16절, 부모 공경)→ 긴 (17-21절, 윤리적 계명) 구절로 짜여져 있다. 안식일 준수를 권고하는 계명을 중심축으로 a-b-c-b'-a' 구조로 배열되어 있다. 로핑크(N. Lohfink)가 신명기의 십계명을 안식일 십계명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²⁰⁾

이처럼 우리는 히브리 구문의 파악에 유의해야 한다. 본문이 왜 특정한 구문 형식 속에서 특정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노력(주석)이

19) 이와 관련된 토론으로는 G. S. Ogden, “Is it ‘And’ or ‘But’? Ideology and Translation,” *The Bible Translator* 53:3 (2001), 327-335.

20) N. Lohfink, “The Decalogue in Deuteronomy 5,” *Theology of the Pentateuch: Themes of the Priestly Narrative and Deuteronomy*, 264.

없이 본문의 의도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번역자에게 주석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단어나 구문의 뜻을 문맥에서 찾아 보라.

어떤 문장에 사용된 단어는 문맥이나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더 넓은 맥락에서 그 의미가 추출될 수 있다. 구약의 시편에서 여러 모양으로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어 네페쉬(**נֶפֶשׁ**)는 그 단적인 경우에 속한다. 시편 42:1의 경우를 살펴보자.

시편 42:1

『개역』 하나님이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표준새번역』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공동번역』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느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NKJV As the deer pants for the water brooks, So pants my soul for You, O God

NIV As the deer pants for streams of water, so my soul pants for you, O God

TEV As a deer longs for a stream of cool water, so I long for you, O God.

대부분의 번역들은 시편 42:1의 히브리어 네페쉬를 “(내) 영혼”으로 옮기고 있다. 이 점은 『표준새번역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의미의 역동적 전달에 더 충실한 번역은 『공동번역』이나 TEV이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라고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단어의 뜻은 하나로 파악되지 않는다. 아니, 하나로 옮겨질 수 없다. 문장에서, 문맥에서, 문단에서 원문의 단어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נֶפֶשׁ**(몸, 고기, 사람), **רוּחַ**(영, 바람, 숨), **אֲהַבָּה**(사랑, 자비, 신실), **אֱמֶת**(진리, 진실, 성실) 같은 말들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단어군에 속한다.

셋째, 단어나 구문의 의미 파악에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정보 등을 충분히 활용하라.

번역자는 원천언어나 수용언어 모두에 능통해야 한다. 아무리 쉬운 단어라도 그 쓰임새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전상의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특히 구약시대의 생활 풍속이나 역사지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요청된다. 성서 번역에 주석이 필요한 까닭이 이런 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신명기 6:9에 사용된 평범한 히브리어 명사 דְּבָרַי 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가 원문의 의미를 불충분하게 전달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신명기 6:9

『개역』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표준새번역』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라

KJV And thou shalt write them upon the posts of thy house, and on thy gates

NIV Write them on the doorframes of your houses and on your gates

NRSV and write them on the doorposts of your house and on your gates

여기에서 바깥문 『개역』, 대문 『표준새번역』, gates(영어번역)로 옮겨져 있는 히브리어 דְּבָרַי 는 가정집의 바깥문이나 대문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집에는 샤아르가 없다. 구약에서 이 명사는 도성의 출입구에 있는 문을 지칭한다. 곧 성문(창 34:20)을 의미하며 하늘이나 음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목에도 놓여져 있는 관문을 나타낸다(창 28:17; 사 38:10).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이 가르침을) 네 집 문설주와 도성의 성문에도 써서 붙여라”로 옮겨져야 한다. 이것은 마을의 관문이나 성문에 이 가르침을 써서 붙여 놓으라는 지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왜냐하면 도성의 성문이야말로 공공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심지이기 때문이다.²¹⁾

5. 번역과 신학

본문번역을 본문 주석의 일환에서 살필 때 번역자의 본문 해석에는 번역자가 지닌 신학이 번역의 방향을 결정짓는 일에 작용하기도 한다. 원문의 뜻이 애매할 수록 주석자의 신학적 판단은 번역 과정에서 중요하다. 특히 주석의 결과 원문의 뜻이 여러 가지로 파악되는 경우일수록 이런 중요성이 더해진다. 이런 경우 번역자는 대부분 자기 신학(주석)의 입장에 따라 선정한 원문의 뜻을 번역문에 수용하게 된다. 그래서 자칫 원문의 의도와는 다른 뜻을 번역문에 되살리게 될 수도 있다. 주석의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정확이 본문 본문에 작용하는 단적인 경우로

21) H. Tigay, *Deuteronomy*,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79.

는 전도서 11:1-2를 꼽을 수 있다.²²⁾

전도서 11:1-2

『개역』 너는 네 식물을 물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
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표준새번역』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네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
는 일곱이나 여덟로 나누어 하여라.

NKJV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s, For you will find it after many days.
Give a serving to seven, and also to eight, For you do not know what
evil will be on the earth.

NIV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s, for after many days you will find it
again. Give portions to seven, yes to eight, for you do not know what
disaster may come upon the land.

NRSV Send out your bread upon the waters, for after many days you will get
it back. Divide your means seven ways, or even eight, for you do not
know what disaster may happen on earth.

위에서 살핀 전도서 11:1-2는 본문 해석에 크게 두 흐름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
나는 히브리어를 직역한 “물위에 식물(빵)을 던지라(שְׁלַח לַמַּיִם עֲלֵי־הַמַּיִם)”는 가르
침이나 “일곱이나 여덟로 나눠주라(וְנָתַתָּה לְשִׁבְעָה וְלְשִׁמְעוֹן)”는 것을 장사나 상
거래, 투자 등을 지칭하는 은유로 보는 입장이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
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네가 무슨 재난을 만날
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일곱이나 여덟로 나누어 하여라”는 번역 『표준새번
역』이 그런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²³⁾ 이 같은 번역에는 전도서의 경구를 자본주
의적 산업구조 속에서 해석한 결과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유무역을 허용
하는 산업구조 속에 살고 있는 번역자의 정황이 본문번역의 열매를 그런 식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자유무역이나 개인의 상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사
회 속에 살고 있다면 이 구절의 뜻은 어떻게 파악될 수 있을까?

전도서 11:1-2는 “너그러움(liberality)”에 대한 충고로도 읽힐 수 있다. 즉, “너
그럽게 주어라. 네가 베푼 호의가 언젠가는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너의 호의를
많은 자들에게 베풀어주어라. 장차 무슨 재앙이 네게 닥칠지 네가 알지 못하기

22) 비교, 민영진, “전도서 번역에 나타난 성서번역의 일반적 문제와 잠정적 해결,”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363-395.

23) Robert Gordis, *Koheleth- the Man and His World*, 3rd ed. (New York: Schocken, 1968), 330.

때문이다”라고도 옮겨질 수 있다. 또 읽기에 따라서 전도서 11:1-2의 “네 식물을 물위로 던지라…”는 충고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모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언급이 되기도 한다. 그것이 전도서 11:4-6의 맥락과도 잘 어울린다. “바람이 그 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바람이 다닌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네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전 11:4-6, 『표준새번역』)

번역과 주석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번역자의 신학이 원문의 뜻을 번역문으로 다듬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말씀이 번역자에게 전하도록 해야 한다. 말씀이 번역자의 신학을 다듬어야지 번역자의 신학이 말씀을 조종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주석(exegesis)이 자의적 해석(eisegesis)이 되어서는 안 되듯 번역자의 생각이 번역문에 어떤 덧칠을 하는 결과를 낳아서도 안 된다. 번역에서 중요한 것은 충실함이다. 원문이나 번역문 모두에 충실한 번역을 이루어내는 일이야말로 모든 번역자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목표가 아니겠는가!

* 주요어

성서번역(Bible translation), 주석(exegesis), 본문비평(textual criticism), 언어학(linguistics), 내용의 동등성(dynamic equivalence).

<Abstract>

Exegetical Problems in Bible Translation

Prof. Tai-il Wang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The focus of this paper is to look at the relations between exegesis and translation, which may prevent the translation process from being faithful to the delivery of the meaning of the biblical text. It begins with an examination of the principle of dynamic equivalent translation, with its emphasis on the meaning of the text rather than its form, which has opened the way to understanding of exegesis and translation as inseparable disciplines. Exegesis is the art of describing the text, determining the voice and the meaning of the text as it is intended to be understood by its readers. Translation is asked to be involved in stating the meaning of the text in such a way as to have the readers of the translation understand the text in a way that is similar to the 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audience. The exegetical influence in translation or the translation factor in exegesis is, therefore, the subject of this thesis. Exegesis becomes a real tool for meaningful/faithful translation of the text.

Understanding of the exegetical nature of Bible translation requires us to realize what may be really useful for translators as translation resources: first, textual criticism, which is to determine what our textual decisions will be, and second, linguistic considerations that help us to pay attention to the weight/structure of words, phrases, and sentences in the translation process. Translation is the art of interpreting the text. Translators are asked to make decisions about what is being translated and how to translate specific words, phrases, and sentences from the original language. Cases in point are 13 passages in the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which reveal translational decisions in their notes, based on textual-critical considerations, not to follow the MT but to go with ancient translations such as the LXX, Vulgate, or the Syriac. Other examples are found in Hebrew terms and phrases in Deut. 5:17-21; 6:9; Ps. 42:1; Ruth 2:7; Jon 3:3; Ecc. 11:1-2, which have either difficult grammatical/linguistic issues or multivalent meanings in the text. When doing translation, translators must pay attention to exegetical aspects of the passage under consideration because translational decisions may weaken or change the meaning of the original text.